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1월 3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편 71:15)

- 맹해경 -

저는 큰 아이의 유치원 친구 엄마인 구역장님의 전도로 은혜와진리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복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무척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을 따라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존귀한 구역장 직분을 주시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힘껏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심전력하여 전도와 주님의 일을 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구역예배를 인도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이들과 새집 마련을 위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상태가 되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교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가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매일 정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비해 주신 사람, 앞으로 알곡 신자가 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라웠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그때까지 성과가 없어 잠시 쉬려고 지친 몸으로 길가에 있는 의자를 찾다가 홀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서 전도했더니 마침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다닐 교회를 찾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동생 남편이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부의 이름을 물으니 놀랍게도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한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이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 모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적 등록을 하였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편 16:6)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매어 주신 구역 성도님들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이 나날이 발전하고 향상되도록 잘 살피고 성심성의껏 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구역이 부흥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두 구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로한 구역 성도님들 중에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몹시 안타까웠는데, 교회에서 침례식이 거행되고 구역에서 대상이 되는 새신자와 나이든 성도님 모두가 세례를 받으므로 더없이 제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지혜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친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더러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다가도 교회에 가서는 즐겁게 예배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대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좇아 성경대로의 신앙관과 가치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 외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과 몸을 드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노라면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것처럼 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대교구장 목사님이 심방을 오실 때마다 각자의 일정을 다 미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전공 분야가 다른 두 아이와 남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장에 일거리가 없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의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말은 일이 끝날 때가 되면 지인 등을 통해서 일감이 그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정의 주님만을 섬기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진리교회의 영광스러운 구역장 직분을 주시고 구령을 위한 사명감과 열정이 충만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전도대상에 이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도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성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제5단원 : 보혜사 성령)

(제26과) 성령의 강림

- 본문 : 사도행전 1:4-8, 2:1-4

• 요절 :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행 2:2-3)

• 찬송 : 169장(새찬송가 182장), 179장(새찬송가 185장)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며, 전지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이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다 함은 곧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숨거나 그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시 139:7~12). 또한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고(느 9:20),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해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강림’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성자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으나(고전 10:4), 때가 되매 육신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듯이, 성령 강림이란 성자께서 이룩하신 구원 사역을 계속 수행해나가기 위해 언약하신 대로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1. 하나님은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사 63:10~14), 선민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시어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민 11:24~30). 그 외에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민 27:18), 삼백 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삿 6:34),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삿 14:6),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삼상 11:6),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다윗(삼상 16:13), 또 에스겔(겔 3:12)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에게 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식일 뿐,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는, 비유컨대 빗방울이 이따금씩 떨어짐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을 2:28~29)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신약 시대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또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자 모두 낙심하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하시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하심으로 재차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하심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굳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성령을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3.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히 기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한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행 2:2~4).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행 2:13)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던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이 오셨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으로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천명이나 되었으며, 이로써 교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속을 만백성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갑시다.